

상품마다 가격·품질 비교 소비자들에 공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만든다

공정위, 이르면 8월부터 서비스 ... 합리적 구매 지원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품을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8월경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격·품질테스트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는 시장의 주

권자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무언보다 제대로 된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전통성과 공정성을 갖춘 주체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가격이 합리적 인지, 또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비교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생산업체의 일방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상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제품 구입시 이

런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나 용도,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생산업체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을 테스트한 뒤 그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시민모임 등 일부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 등에서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삼아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한

뒤 해당 소비자단체가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소비자연맹이 컨슈머리포트를 만들어서 상품테스트 결과 등을 제공해왔으며 소비자들이 상품 구입 전에 이를 반드시 참고할 만큼 유력한 구매정보로 자리 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 방식이나 대상 상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8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공기업 기관장 이번주 희비 갈린다

산은 총재·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교체설 유력
광주은행장 등 경영능력 감안 선별 결정할듯

정태석 광주은행장 등 최근 사의를 표하거나 사표를 제출한 우리금융지주와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이번 주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21일 "전광우 금융위원회가 미국 방면에서 돌아오는 대로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의 재신임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언급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해춘 우리은행장, 정태석 광주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 등이 재신임 대상에 올라 있다.

또 대통령이나 금융위원회가 임면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도 대부분 사표를 넣으로써 중도

퇴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상은 이철취 자산관리공사 사장,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이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윤용로 기업은행장 등이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비판을 받은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직원 부정채용이 적발된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나머지 기관장들은 과거 임명 과정과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업 실적개선 '훈풍' 코스피 1800선 회복

中·日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강세

주식시장이 해외증시의 호조와 국내의 기업의 실적개선 등의 '훈풍'에 힘입어 3개월여 만에 1,800선을 회복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직전 거래일(18일) 대비 28.58포인트(1.61%) 상승한 1,800.48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1월10일 이후 3개월여 만에 1,800선을 넘어선 것으로, 코스닥지수도 6.31포인트(0.98%) 오른 650.06에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가 씨티그룹과 구글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2%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오름세로 출발했다. 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6.80% 폭등 개장하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1.63%)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폭이 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9.20원 급락한 991.50원으로 마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성 내의 브랜드 '섹시쿠키 시티' 론칭을 기념해 21일 오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열린 '속옷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ℓ = 1,688원

휘발유값 4.26원 올라 최고
세금 인하 전 수준 넘어서

유류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마침내 세금 인하가 단행됐던 6주전 수준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셋째주(4.14~18일) 전국 1천100개 주유소를 표본으로 조사된 무연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 당 1천688.02원으로 전주보다 4.26원 상승했다.

이번 주 평균가격은 이전 최고치이자 세금 인하가 반영되기 직전 주었던 3월 첫째주 1천687.87원을 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1천675.65원)만 전주보다 1원이 내렸을 뿐, 나머지 전 지역이 상승했고 특히 서울은 7.28원 오른 1천739.66원이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경유 가격 역시 ℓ 당 1천595.42원으로 전주보다 6.87원 올라 1천600원선에 다가섰다.

경유 가격은 5주 연속 오르면서 휘발유와의 평균 가격차가 92.6원으로 전주(95.1원)보다 더욱 좁혀졌다.

/연합뉴스

옥션 해킹 정보 유출 파문 인터넷비즈니스 위기 우려

최근 사상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옥션 해킹 사건이 인터넷 비즈니스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천81만명이라는 피해자 수는 전체 국내 총 인터넷 이용자 3천500만명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심볼리 예상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

이미 곳곳에서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이용자를 확보한 메신저 서비스 네이버에서 도용된 아이디로 접속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해 10여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법인은 출신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뒤 등록된 친구나 선구매 등에게 말을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피해는 지난 2~3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 가능성을 부인했으며, 대신 이용자 PC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범행이 집중된 시기가 옥션 해킹 사건 이후인 것으로 미뤄 사건의 2차 피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이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추론에 근거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만수 재정 장관 "2분기부터 성장 둔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4분기부터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제수지도 당초 생각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동 웰레스토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경제 여건이 어렵고 견해가 달라서 정책수립에 커뮤니케이션이 필

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2월 결산법인 매출 대비 수출 ↑ ·내수 ↓

제조업체 397개사 분석...수출액 11% 증가
기계·화학·운수장비 업종 수출 증가율 1위

12월 결산법인들은 지난해 수출과 내수 모두 10%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커진 반면 내수 비중은 소폭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증권분석평가연구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제조업체중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397개사의 지난해 수출 및 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수출액은 총 249조5천51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7%(26조5천53억원) 증가했다.

내수 매출액은 지난해 169조5천141억

원에 비해 전년에 비해 8.45%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419조6천653억원)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59.54%로 전년에 비해 0.73%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내수비중은 이 기간 41.19%에서 40.46%로 0.73%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 수출액 증가율은 기계업종이 31.88%로 1위를 차지했고 화학(16.78%), 운수장비(14.04%), 철강금속(13.79%), 의료정밀(12.69%), 의약품(10.71%), 전기전자(7.48%), 종이목재(7.28%), 섬유유복(6.71%)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펀드 분쟁 갈수록 늘지만 투자자 구제 한건도 없어

2005년 이후 펀드 대종화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의 불안전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펀드 투자자 중에 분쟁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에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불안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을 상대로 한 펀드관련 분쟁 신청은 지난해 1~4분기에 거의 없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46건이나 접수됐고 증권사의 경우 2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건(33.3%) 증가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펀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금융

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펀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중에서 투자자가 원한 펀드 판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07년 중에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1건으로 전체 증권분쟁의 14%를 차지했으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금융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펀드가 입 때 투자자의 자필 서명 의무화를 실시하자, 분쟁조정 때 투자자가 판매사의 펀드 불안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투자자가 펀드 가입시 판매사의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 의무 이행 사실에 대해 서명토록 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새규직) 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22	062-601-7213
광원직업전문학교	취업지원/시설관리,운전원 정규직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3	062-529-3000
한국정보보호인사(주)	정보보호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3	062-521-2496
인맥스디자인	디자인(출판/편집) 디자이너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24	062-232-7705
기영미디어스	품질관리 사원 채용 공고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24	062-952-9442
원해대산업이앤에스	정규직 산업디자인 경력 직원 모집	고졸/경력2년	1400~1600	04/24	061-792-1900
드림리미트	정규직 커서 및 판매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62-574-8112
남해종합개발	관리팀 여직원 및 조경설계직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25	062-220-2514
중일철강	커피리 생산/납품관리 여 직원을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62-944-8877
홍민통운	[광주]배차관리 실무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2-2668-3303
한행남자기광주총판	남품사원 및 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26	062-527-2627
에스원에스코리아(주)	2008년 버거킹 매장 영업직(메니저) 지원2차 모집(광주)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9	02-3670-8324
태경실업(주)	관리부 여경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30	062-373-7405
대우캐피탈 광주점남지사	[광주/전남] 2008년 대우캐피탈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524-6900

(광주접코리야 512-6210 제공)

전세계 백만장자 800만명

금융위기 불구 지난해 4.5% 증가

전 세계의 백만장자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00만명 가량으로 늘어났다고 씨티은행 측이 밝혔다.

씨티 프라이빗뱅크(PB)은 나이트 프랭크와 함께 조사해 21일자로 공개한 보고서에서 사는 집을 제외한 순수 재산이 100만달러가 넘는 부자가 지난해 4.5% 증가해 800만명에 달했다면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 대국과 카자흐스탄 같은 자원부국에서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캐나다·호주 및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원자재폭이 일면서 각각 8천500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새로 탄생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연합뉴스